

지체의 말씀

불기 2561년 12월 / 통권 442호



Vertical calligraphy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ncluding a red seal at the bottom.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증도가)

궁 석 자 구 칭 빈 실 시 신 빈 도 불 빈
窮釋子口稱貧이나 實是身貧道不貧이라
가난한 부처님 제자 가난하다 말하지만
사실 몸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하지 않다.

빈 즉 신 상 피 루 갈 도 즉 심 장 무 가 진
貧則身常被縷褐이나 道則心藏無價珍이라
가난하니 몸은 늘 남루한 누더기를 입지만
도가 있으니 마음에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갖고 있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정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 서경스님

불교상식 · 7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부처님의 말씀 · 12

알림마당 · 17

대광사 12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12월 유치원 행사

어린이법회 12월 활동

동지기도 안내

대광산악회 산행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Tel. 055) 602-6267





정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서경스님 / 대광사 주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일도 많고 탈도 많은 한해였다. 방송과 신문지상을 도배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굳이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모든 일들이 순리에 따라서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바란다.

한해를 시작하며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리라 다짐하며 시작을 하는 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보통 삶이다. 또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만족을 미소를 지으며, 실수한 부분이나 게으름 등에 대해서는 반성 내지는 참회를 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삶들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자신을 채찍질 하는 것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지닌 마음일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삶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며, 불교를 실행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에 대한 방법의 실천과정이다.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 신라시대 원효스님은 육정참회六情懺悔라는 법문을 하셨다. 육정은 잘 알다시피 안眼·이耳·비鼻·설舌·

신身·의意로서, 사람의 인식 기관인 눈·귀·코·혀·몸·생각이다. 이것을 육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모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감정이 붙어 있다. 이런 감정에 이끌려 밖으로만 구하던 마음을 육정을 통하여 안으로 돌리는 것이 육정참회이다.

눈으로는 형상을 보되 보이는 형상에 대한 분별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구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보이는 그대로가 행복한 삶이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여서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망상분별하고 구하기 때문에 번뇌집착이 일어난다. 눈을 감아 대상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되 구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취사선택하지 않으면 그대로가 깨달음의 삶이다.

소리를 들을 때는 그냥 듣고, 냄새를 맡고, 감촉을 느끼고, 혀로 맛을 느낄 때, 그냥 알기만 하면 귀·코·혀가 하는 일에는 허물이 없다. 자기의 경험이나 관습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이것은 나쁘고 저것은 좋다하여 좋은 것은 계속 구하려 하는 마음에 허물이 있는 것이다.

불교의 수행은 우리의 삶이며 생활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역대 깨달은 모든 조사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다. 삶을 스트레스가 없고 망상집착이 없이 살려면 과거에 무슨 생각이 났든, 과거는 과거그대로 묻어두면 되고, 미래는 아직 오



지 않았으니 미리부터 생각지어 걱정을 말들어내지 않으면 된다. 만약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화가나서 잠을 잘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좇아 집착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걱정도 마찬가지이다. 일할 때는 일만하고, 먹을 때는 먹기만 하고, 볼 때는 그냥 보기만 한다면 그대로가 삼매이고 스트레스 없는 삶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참 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오직 내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기에 쉽고, 남에게 기대어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기에 또한 어려운 것이다.

사실 깨달음의 삶이란 별스러운 것이 아니다. 육조혜능 스님의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眞如自性(진여자성)이 起念(기념)일새 六根(육근)이
雖有見聞覺知(수유견문각지)나 不染萬境(불염만경)하면
而眞性常自在(이진성상자재)니라.

진여인 마음이 생각을 일으켜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달아 알지라도 여러 가지 대상(육경)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행복하다.

지나가는 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잘 갈무리해서 보내버리고, 다가오는 해에는 하루하루 나의 본성을 실현하는 삶으로 가득차길 기원해 본다.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머리말

천수경은 우리와 매우 친숙한 경이다. 사원에서는 아침저녁으로 독송하는 경일뿐 아니라 각종 의식(儀式)에 있어서 빠질수 없는 경이다. 그러므로 불자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독송집(讀誦集)’이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천수경에 대하여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요구한다면 여러 가지로 난해한 점에 실감한다. 그리하여 천수경이 대중화되고 통용화된 데 비해서 내용이 나 연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다. 불자들이 늘 독송은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은 그것이 종교의식과 신비영역에 속한 것이요, 일반적인 간경(看經)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천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뜻에서 간략히나마 강의를 시도해 보는 바이다.



천수경와 관음신앙

천수경의 갈추어진 명칭은,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 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大陀羅尼經)’이며, 천수는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을 뜻한다. 관세음보살께서 지난 무량겁(無量劫) 전에 천광왕정주여래(天光王靜住如來)로부터 받으신 ‘대비신주(大悲神呪)’를 다시 중생을 위하여 세상에 선설하신 것이므로 ‘천수경’이라 한다.

관세음보살은 범어 ‘아바로기테스바라(Avloitesvara)’로서 ‘관자재(觀自在)’라 번역한다. 줄여서 ‘관음’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간략히 부르는 약칭이다. 관세음을 간략히 관음으로만 부르게 된 역사적인 한 동기가 있었다면 중국 당태종(唐太宗)의 이름이 세민(世民)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에는 ‘세(世)’자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관세음에 있어서도 ‘세(世)’를 생략하고 관음이라 부르게 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한다.

관세음보살은 32응신(應身) 14무외력(無畏力) 4부사의덕(不思義德)을 갖추어 현세에는神通력(神通力)과 위신력(威神力)으로 중생들을 자비롭게 보살피신다. 그리고 사후에는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중생을 인도하는 보살이시다.

觀音妙智力 관음묘지력
能救世間苦 능구세간고



具足神通力 구족신통력
 廣修智方便 광수지방편
 十方諸國土 시방제국토
 無刹不現身 무찰불현신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은
 능히 세상의 고통을 소멸하신다
 신통력이 구족하시고
 지혜의 방편을 모두 갖추시었도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데가 없으시다,

이와같이 관세음보살께서는 6도(六道: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도, 천도)중생을 다 구제하시기 위하여 6관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① 성관음(聖觀音, 正觀音, Arya) ② 천수관음(千手觀音, Shhasrabhuja) ③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 Ekadasamukha) ④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 Cintamanicakra) ⑤ 마두관음(馬頭觀音, Hayagriva) ⑥ 준제관음(准提觀音, 天人, 丈夫觀音, Candi) 등으로 출현하고 계신다.

천수경에서는 이같은 6관음 중에서 천수관음이 중심이 된다. 천수천안의 신비한 위신력과 자비력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천수경의 다라니(陀羅尼)를 외우도록 한 것이다.



대장경에 수록된 천수경

대장경(大藏經)에는 몇 종류의 천수다라니를 수록하고 있다. 기록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經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
당 가바범달마 역(唐 伽巴梵怛磨 譯(大正 20))
- (2)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84句)
천수천안관세음보살대비심다라니(84句)
당 불공 역(唐 不空 譯(大正 20))
- (3) 千手千眼觀世音菩薩姥陀羅尼身經
천수천안관세음보살모다리니신경
당 보리유지 역(唐 菩提流支 譯)
- (4)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身呪本
천수천안관세음보살대신주본
당 금강지역(唐 金剛智 譯)
- (5) 千手千眼觀自在菩薩陀羅尼身呪經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
당 지통 역 (唐 智通 譯, 梵漢二本)
- (6) 千手千眼觀自在菩薩陀羅尼身呪經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
당 지통 역 (唐 智通 譯)

(7)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呪本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주본
당 금강지역(唐 金剛智 譯)

(8) 番大悲神呪
번대비신주
실역(失譯)

(9) 金鋼頂瑜伽千手千眼觀自在菩薩修行儀軌經
금강정유가천수천안관자재보살수행의궤경
당 불공 역(唐 不空 譯)

(10) 世尊聖自千眼千手千足千舌千臂觀自在菩提薩唾達縛
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
세존성자천안천수천족천설천비관자재보리살타달박
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

이상과 같이 천수경에는 여러 종류의 다라니가 있다. 그러나 경의 제목이 다르고, 역자가 다르듯이 내용이나 체재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여러 본(本)의 천수경 중에서 현행 독송용 다라니와 가까운 것은 (1)번과 (2)번이다. 유통본 현행 천수다라니와 완전 동일하지 않은점이 있는 것은 전승(傳乘)과정에서 약간의 변모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품 뱀의 품

2. 코뿔소의 외뿔의 경 [Khaggavisāna-sutta]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상처주지 말며,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들이라.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피,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정을 나누며 마음이 얽매이면 유익함을 잃으니, 사립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살피,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대는 뻗은 대나무가 영킨 것과 같으니, 대나무 순이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숲 속에 묶여 있지 않는 사슴이 초원을 찾아 거닐듯, 현명한 자라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료들과 지내거나 서있거나 가거나 또는 거닐면, 항상 요구가 많다. 남이 탐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료들 가운데 유희와 환락이 있고, 자손이 있으면, 커다란 애착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싫은 사람은,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네 방향으로 적의가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위험을 극복하여 두려움없이,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떤 자들은 출가해도 섭수가 어렵고 가정에 사는 재가자와 같다. 다른 사람들의 지식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앞이 떨어진 꼬빌라라 나무처럼, 재가 생활의 특징들을 없애 버리고 재가의 속박들을 끊고, 용기 있는 이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마음챙김을 갖추어 그와 함께 가라.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은 행복을 기린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하면 허물없음을 즐기며,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금세공사가 잘 만들어낸 빛나는 한 쌍의 황금팔찌도 한 팔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보고,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라. 장차 이러한 두려움을 잘 살피,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쾌락의 종류는 다양하고 달콤하고 즐거우나,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마음을 혼란시킨다. 욕망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위험을 보고,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이 내게 고뇌이고 증기이고 재난이며,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이다. 욕망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보고,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바람, 열기, 쇠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깨가 벌어지고 반접 있는 장엄한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 마음대로 즐기며, 숲 속을 거닐 듯,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교적 모임에 탐닉하는 자는 일시적인 해탈에도 이를 수 없다. 태양의 후예가 한 말씀을 명심하여,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릇된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어 감관의 제어에 이르는 길을 얻으니 '나에게 궁극적인 지혜가 생겨, 남에게 이끌릴 필요가 없다.'라고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없이, 속임없이, 갈망없이, 위선없이, 혼탁과 미혹을 태워버리고, 세상의 온갖 바람에서 벗어나,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유익함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일삼는 사악한 친구를 멀리하라. 걱정에 휩싸여 방일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널리 배워 가르침을 새길 줄 아는, 고매하고 현명한 친구와 사귀라. 유익한 길을 분명히 알아 의혹을 제거하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유희, 오락이나 감각적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꾸밈을 여의고 진실을 말하면서,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재산도, 곡식도, 친지들도, 모든 감각적 쾌락의 경계까지도 다 버리고,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다음호에 계속 -



12월 동지기도 안내



- 일 시 : 2017년 12월 20일(수)~22일(금)
- 법회시간 :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동지시간 : 오전 1시 28분
- 동참금 : 가족축원 3만원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545-9595



대광사 12월 법회 및 행사

- ◆ 12월 2일 : 음력10월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2월 11일 :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1시 대웅전
 - ◆ 12월 18일 : 음력11월 초하루 기도입재
 - ◆ 12월 20일 : 초하루기도 회향, 동지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2월 22일 : 동지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동지시간 : 오전 1시 28분)
 - ◆ 12월 31일 : 타종식 오전 0시 대광사 종각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중무소 ☎055-545-9595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12월 3일 심수복영가 · 12월 21일 김영수 영가
12월 24일 강도연 영가



태백동 급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10월 20일~11월 15일)

홍승운 20,000	허점자 10,000	공상섭 20,000	박점수 10,000
유봉악 10,000	황두관 10,000	(주)카텍 300,000	박미애 10,000
이상현 20,000	원광한의원 100,000	김인복 10,000	
이봉숙 10,000	조성부 100,000	김지현 100,000	박덕선 100,000
대광산악회 30,000	박진호 50,000	홍예현 50,000	불대16기 110,000
찬불단 50,000	서경스님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지원금(10.25~11.15)

강란 10,000	하형규 10,000	안소현 30,000	후원회 50,000
유미란 10,000	김인복 30,000	홍예현 10,000	안옥래 10,000
법연화 10,000	서경스님 100,000		

♥ 어르신한마당 후원자

하형규 100,000	박종수 100,000	최상용 100,000	김주섭 50,000
신도회 300,000	염불봉사회 100,000	박차생 100,000	박호도 50,000

**♥ 음력 9월 초하루 공양자**

여래심 과일공양 대도화 떡공양 지마트 김민지 구동채 보경아구짬

♥ 9월 보름 공양자

김민정 이희진 강상호·강상희 유순영 영가

♥ 석굴암 참배 공양자

정법행 ⇒ 떡공양 남미영 ⇒ 차공양

 **12월 유치원 행사** **1. 대광 겨울 축제**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 장소 : 유치원 강당
- 대상 : 대광유치원 원아와 교사

2. 대광유치원 겨울방학안내

- 방학식 : 2017년 12월 22일(금)
- 기간 : 2017년 12월 23일(토) ~ 2018년 1월 11일(목)
- 개학일 : 2018년 1월 12일(금)

 **12월 어린이법회 활동** **1. 송년법회 및 방학법회**

- 일시 : 12월 23일(토)

대광산악회 제37차 무주 덕유산 산행안내

- 일 시 : 12월 17일 일요일
- 출발지 : 대광사
- 참가비 : 2만원 (저녁비 개인준비)
- 준비물 : 도시락 · 간식 · 따뜻한 물 · 개인컵

한해를 보내면서 ^^~~~~~

대광산악회

대인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